

JANUARY
2019

1

느헤미야

풍성한 삶



본 교재는 날마다 솟는 샘물 2018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포어로도 번역되어 동시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 가야 하는가?

새해를 시작하며 무너져 있던 신앙생활의 영역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포로 귀환 당시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큰 도움을 줍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이어 느헤미야가 행한 사역들은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바로 세워 갔는지 그 재건 과정을 보며,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 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현실 앞에 직면하다(1~2장)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이해하려면, ‘능욕’(헤르파)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능욕으로 가득 찼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1:2~11). 느헤미야가 한 번도 밟아 본 적이 없는 고국의 소식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이유는 ‘예루살렘에 대한 능욕’을 ‘하나님에 대한 능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1:3, 2:3, 13, 17)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받던 술 관원이었는데, 그 위치에 있던 그도 성벽 재건의 재가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2:1~3).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문제에 직면해(1:9),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과 성벽 복구를 위한 물자 지원을 허락 받습니다(2:7~8). 이후 성벽 복구의 방해와 위협의 벽

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2:18)을 언급하며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을 위한 디딤돌을 놓습니다. 이처럼 능욕을 이겨 내기 위해 문제에 직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해를 방어하다(3~4장)

‘예루살렘에 대한 능욕’은 ‘성벽 건축자들과 성벽에 대한 능욕’으로 옮겨집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중수하다’(하자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3장 앞부분에서는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의미로, 4장 말미에서는 병기를 ‘잡다’(4:17, 21)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벽을 중수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개념의 확장’을 뜻하며, 성벽 중수까지 이뤄져야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집’ 확장 공사에 참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 중수는 물론, 대적들의 방해에 대한 방비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참했으며,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모두의 노력으로 이 일이 진행됐음을 보여 줍니다(3:1~32).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성전 확장 및 복원이라는 외형적인 특징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과정에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성벽 건축자와 성벽을 능욕함(4:1~3)으로 백성에게 불안 요소를 주입했던 것입니다(4:10). 이런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적들의 방해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4:7~9).

특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4:15)라는 구절을 통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적들의 공격 계획은 무산됐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집’ 중수를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이처럼 방해자들에 의한 능욕은 계속됐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해 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이 일을 어

떻게 풀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민에 대한 정답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의 방비를 갖추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완공하다(5~7장)

‘성벽 건축자들과 성벽에 대한 능욕’이 ‘느헤미야에 대한 능욕’으로 이어 집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는 성벽 중수 과정에서 발생한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백성으로부터 이자를 취하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넘기는 일들을 행합니다(5:1~5). 이는 율법에서 금한 일로(레 25:35~37), 동족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백성으로부터 이자받는 것을 금지하고, 토지와 가옥을 반환할 것을 지시합니다(5:10~12). 왜냐하면 이는 이방 사람에게 ‘능욕’당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5:9).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같은 행위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총독으로서 받을 녹을 받지 않는 모범을 보입니다(5:14, 18). 이처럼 그는 자기희생을 통해 백성을 긍휼히

여겼으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대적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벽 중수가 무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한 간계를 부립니다(6:1~2). 그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유언비어였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야레)을 일으켜, 손을 피곤하게 해 하나님을 경외(야레)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내 손을 중수하여(하자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상황을 극복합니다(6:6~9).

두 번째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하려 했지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범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겨 냅니다(6:10~13). 마지막은 유다 귀족들과 관계된 것으로 도비야의 행적을 통해 발견되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6:17~19). 그러나 이것도 성벽 재건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썼던 방법이 ‘두려움’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까지 확장된 성전 개념을 실현했으며(7:1, 3),

포로 귀환 명단(7:5~73)을 작성해 ‘하나님의 집’ 완공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일일이 기록에 남깁니다.

말씀·회개로 언약의 토대를 세우다 (8~10장)

성벽 완공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 앞 광장으로 집결합니다. 놀라운 일은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장면입니다(8:1). 이는 언약 갱신에 백성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레위인들에 의해 율법 해석을 듣고 깨닫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언약 갱신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8:8~9). 이튿날에는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모여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지내야 하는 율법을 듣고, 초막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8:13~18).

그런데 그달 스무나흘날 모임은 이전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굶은 배움을 입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조상들의 죄에 대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조상들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잘못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9:6~36). 비록 지금은 약속의 땅에서 죄로 인해 중으로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시 세운 언약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

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며,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포함한 84명과 남은 백성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10:1~28).

이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 사람들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돌보는 일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결단합니다(10:32~39).

이처럼 말씀과 회개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외형적인 사역과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치관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직 말씀과 회개로 새 시대를 준비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다(11장)

성벽은 완성됐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성벽 재건도 중요했지만, 이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했으며, 남은 백성이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 백성은 복을 빕니다(11:1~2). 지도자들은 자원해 성을 지키기로 결의했고, 그곳에 남기로 한 자들을 축복하는 백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부분에 예루살렘 외곽에 터전을 잡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레위 사람의 거주지가 제시되는데(11:25~36),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거주민들의 지역을 제시하며, 기존 성전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은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에도 말씀이 뼈대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회개'라는 기초 공사를 튼튼히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 말씀과 회개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꿈꾸며 끊임없이 갱신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9년 새해, 나와 공동체에 무너져 내린 성벽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과 회개의 토대 위에서 날로 변화해 가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
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
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
데
-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
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
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
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
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
는지라
-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
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 6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
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
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
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
여
- 7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
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
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용관찰

1.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3~4절)
2. 느헤미야는 누구의 죄를 위해 회개합니까?(6~7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회개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꼈습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사(페르시아)의 궁전에 있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 일행으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2절).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당한 환난과 능욕,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탄 처참한 상황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3~4절).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비참한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회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서 유다 백성이 신실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자신도 죄에 대한 책임에서 예외가 아님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6~7절). 이처럼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관계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자의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골방기도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고 정결하게 하소서.

-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흠을 것이요
- 9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내용관찰

1.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9절)
2.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며, 맡은 직책은 무엇입니까?(11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이방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느헤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모아 회복시키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8~9절). 당시에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느헤미야가 왕의 전적인 총애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의 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은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11절). 사실 느헤미야 정도의 직책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왕의 술 관원이라는 지위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영향력이 나를 현혹시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세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세상 지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으로 사는 삶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하소서.

- 1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
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
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
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
심이 없었더니
-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
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
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 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
니
- 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
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
하고
- 5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
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 6 그 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
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
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
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 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
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
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
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
시고
- 8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
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
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
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
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 9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
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 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
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
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용관찰

1. 느헤미야는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를 묻는 왕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2~3절)
2.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5, 7~8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왕에게 담대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왕에게 담대히 도움을 청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 내가 실천할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발견하고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2~3절). 이에 왕은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바를 물었고,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요청합니다(5절).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자세한 계획을 들은 후 허락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왕이 자신의 요구를 허락한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7~8절). 사실 주어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택한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히 행하는 자와 함께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해 기도하며 주의 일을 담대히 행하게 하소서.

- 11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 12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 13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 14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 15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 16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 17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 18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내용관찰

1.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도전하며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7~18절)
2. 느헤미야는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말에 어떻게 대답합니까?(19~20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공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주변의 반응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옳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오늘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혹한 실상을 직접 살펴봅니다(13~14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모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들은 백성은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17~18절). 하지만 이때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 통치권을 행사하던 그들은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벽 재건을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매도하며, 여차하면 반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의도까지도 내보입니다(19절). 이에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다며 담대하게 맞섭니다(20절).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담대함을 본 백성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시기하는 자들은 있기 마련이며, 언제든지 이들에 의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 1 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 3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 4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 28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 29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 30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 31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밋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 32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6~27절 중략

내용관찰

1.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별한 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1절)
2.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5절)

연구와 묵상

3. 공사에 참여한 자들과 그들이 담당한 사역이 일일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합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과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합니다(1절). 이후 저자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맡아서 보수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본문에 열거된 이름이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문과 성벽 재건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드고아의 귀족들만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5절). 그들이 왜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했습니까? 만일 이해타산을 따져 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느헤미야가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던 이유를 보며, 나는 공동체의 아픔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2. 가정과 공동체의 상황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나누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우리 가정이 민족과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기도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에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1, 11절). 그가 수산 궁에 있을 때,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과 남겨진 주민의 형편이 너무나 참혹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졌고, 이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달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4~7절).

느헤미야는 왜 자신이 겪은 일도 아닌데 민족이 처한 어려움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느헤미야가 거주했던 수산은 예루살렘과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멀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걱정하기에는 현재 그의 위치가 너무나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자였기에 민족의 일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대에 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감동적이기보다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인류의 죄를 대신 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생각할 때, 이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은 우리 가정도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우선하는 모습은 가정을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회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항전하며,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1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흠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 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 4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 5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세상의 비웃음과 공격을 이기는 법

느헤미야 4:1~6

내용관찰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크게 분노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으며 조롱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욕적인 발언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악담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편, 백성과 마음을 다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다.

연구와 묵상

1. 산발랏이 성벽 건축에 분노하며 비웃고 조롱한 이유는 무엇인가?
-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성벽이 완성되면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을 낮추고 사기를 떨어드리려 한 것이다.
2. 느헤미야가 조롱하는 무리들의 방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적들에게 분노로 맞서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뤄 주실 것을 기도했다. 이는 느헤미야 역시 성벽 재건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보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구한 공격적인 기도였다.

느낀 점

사탄은 느헤미야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 죄선을 다한다. 이런 심리적, 환경적 공격은 2년 가까이 훈련을 받으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놓는 연습을 해 온 내게도 나타난 일이었다. ‘훈련한다고 유약한 네가 바뀔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나?’ 등 주변 환경을 흔들며 나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방해들은 틈만 나면 계속됐다.

오늘 본문을 보며 당시에 나를 끝까지 훈련받지 못하게 하려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훈련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헌신하겠다.

결단과 적용

1.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노트에 적고 회개한 후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다.
2.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하며 기도하겠다.

- 고유경 집사

내용관찰

1. 산발랏과 도비야는 성벽 건축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1~3절)
2.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4~5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의 도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사람들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느헤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 공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고 있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지만, 사실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1, 3절). 물론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 공작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언변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참조 2:20), 그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발랏과 도비야에 의해 명백히 업신여김을 당했고 대적들의 범죄 사실은 분명했지만,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분노를 내뿜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4~5절). 느헤미야가 갈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악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골방기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 7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 12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 13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 11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용관찰

1.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이 순조롭게 중수되고 있다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7~8절)
2. 대적들의 침략 의도를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9, 13~14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기도와 더불어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성을 지키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자신의 역할도 다하는 느헤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두렵고 떨리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등을 비롯한 대적들의 비웃음에도 예루살렘의 성벽은 모두 연결됐고, 그 높이도 절반에 이르렀습니다(참조 6절).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심히 분노했고,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대적들의 의도가 알려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10절).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과 달리 하나님께 간구했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합니다. 또한 백성에게 무장할 것을 지시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9, 13~14절).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느헤미야는 안팎의 무성한 소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일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낙심보다 하나님께 위기 상황을 의뢰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골방기도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함과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15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 16 그 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 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 18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 19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 20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 21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 22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 23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내용관찰

1. 대적들의 공격 계획이 무산된 후 백성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16~18절)
2.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맡은 백성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20, 22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와 경계 태세를 함께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느헤미야가 공사와 경계를 균형 있게 갖춘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은 있지만 그 일에 성실히 전력투구하지 못해 실패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내게 맡겨진 여러 사역들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려면 무슨 결단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대적들의 공격 계획이 무산됩니다(15절). 이후 느헤미야는 백성의 절반은 성벽 공사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전투태세를 취하게 합니다. 또한 성벽 공사에 투입된 백성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다른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16~18절). 왜냐하면 대적들의 위협을 소홀히 여길 수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와 더불어 경계 태세도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자를 자신의 곁에 두고, 공격이 발생할 때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을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공사 일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성안에서 숙식하며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20, 22절).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와 전투 준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어느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겠다는 마음과 바른 균형 감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골방기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철저한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게 하소서.

- 1 그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 2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 3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 4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 5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용관찰

1. 당시 백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2~4절)
2.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힌 백성은 어떤 최후의 방법을 써야 했습니까?(5절)

연구와 묵상

3. 백성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형제의 고난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유다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지금까지 형제자매를 어떻게 섬겨 왔습니까?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때에 백성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1절). 왜냐하면 백성은 흉년으로 곡식을 얻지 못해 밭과 집까지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고,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2~3절).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5절). 이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지도층이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몸 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를 돌보지 않는 성도를 향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비판합니다(참조 약 2:15~17).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 주변의 형제 중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이며, 그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골방기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 6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 7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 8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 9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 10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 11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 13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용관찰

1. 느헤미야가 꾸짖은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7~8절)
2. 그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느헤미야가 제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9~11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이자 면제'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연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느헤미야의 조치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성벽 재건 사업에 모범을 보여야 했던 유다 지도자들 중 일부는 그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7절). 그리고 이자를 받지 못할 경우, 그들의 소유지를 빼앗거나(11a절), 그들의 자식을 종으로 삼고, 심지어 매매까지 했습니다(8절).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이자 받기를 금지하고(10절), 담보로 잡은 토지와 가옥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 및 이자 면제를 요구합니다(11절). 왜냐하면 이는 율법이 명백히 금지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참조 레 25:35~37).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와 연결하며(9b절),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동족들의 형편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참조 마 22:37~40).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어려운 형편에 놓인 가족과 형제, 이웃과 동료의 상황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회가 아닌 도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골방기도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 14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십이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 15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사십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 16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 17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백오십 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 18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 19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용관찰

1. 유다의 선임 총독들과 느헤미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14~16절)
2.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18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선임 총독들과 달리 백성을 위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관행이라는 이유로 내 유익을 구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의 앞선 총독들과 달리,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도 않았고(14~15절), 땅을 매입하지도 않았습니다(16a절). 오히려 지도자들을 위한 식사 비용을 자비로 충당했으며(18절),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의 종들까지 모범을 보이게 합니다(16b절). 느헤미야가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제한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15절) 백성의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18절). 선임 총독들과 비교하면 재정적인 손실이 매우 컸겠지만, 그에게는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은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19절). 물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인정해 주시는 섬김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관용을 베풀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6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기준을 근거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2.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며, 자기희생과 섬김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에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도탄에 빠진 백성의 목소리와 불평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화가 났지만, 먼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해 더욱 고통스럽게 한 귀족과 민장들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합니다(6~7절). 그리고 느헤미야도 자신과 자신의 아랫사람들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 시인하며, 부당하게 취한 이자는 돌려주고, 빚도 모두 면제해 주라고 명령합니다(10~11절). 다행히 귀족들과 민장들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대로 시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12절).

느헤미야는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일들을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방법에 따라 공동체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귀족과 민장들도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이기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가기 위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자신의 희생을 통한 결단을 단행한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해답을 제시하기란 어렵습니다. 가끔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삶의 기초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공동체 모두가 살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일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결정한다면 결코 선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사랑을 베푸는 희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상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 1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 3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 4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 5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 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 7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 8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यो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 9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용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내용관찰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음모를 느헤미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토론을 빌미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며 그의 목숨을 위협하려 했고, 계획이 실패하지 역모로 몰기 위한 편지까지 보낸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만남에 대한 제의를 거절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연구와 묵상

1.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 이유는 무엇인가?
 - 고대의 공식 문서는 양피지 등에 기록한 후 끈으로 묶어 인장으로 날인해 당사자 외에는 볼 수 없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편지를 열어 볼 수 있게 해 느헤미야가 역모를 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한 것이었다. 이는 그를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동시에 성벽 건축도 중단시키려는 의도였다.
2.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모반을 꾀한다는 헛된 주장을 하며 느헤미야를 협박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사명 의식이 있었고 자신과 대적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든 문제를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느낀 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던 이유는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살고 있던 백성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모반을 꾀한다는 소문과 회유, 반복된 협박은 성벽 재건을 추진하던 느헤미야에게 큰 장애 요인이었다.

나 역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 과정 중에 있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 그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할 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집중했던 어리석음에 대해 회개한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과 소리에 신경쓰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결단과 적용

1. 육의 피곤과 영적인 게으름으로 새벽예배에 며칠 동안 나가지 못했는데 다시금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겠다.
2. 마음에 품은 태신자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 있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겠다.

- 박수임 집사

내용관찰

1.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자 한 일은 무엇입니까?
(2, 5~7절)
2.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에 어떻게 대처합니까?(3, 8~9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방해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적 위기관리 능력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공격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성벽 재건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목숨을 해하려고 집요하게 만남을 제안했고(2, 4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가 유다의 왕이 돼 바사 제국을 모반할 것이라는 인신공격 및 거짓 소문을 유포시킵니다(5~6절).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해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3~4, 9절). 느헤미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벽 재건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소명의 긴장감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큰 역사'(3, 9절)이므로 언제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했기에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한 끈질긴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두려움과 거짓을 이기는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케 하소서.

- 10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 11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 12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 13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 14 내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엿노라

내용관찰

1.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0절)
2. 느헤미야는 음모에 어떻게 대응합니까?(11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생명의 위협도 믿음으로 이겨 낸 느헤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말씀과 내 유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내가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성전 안에 있는 외소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10절). 하지만 느헤미야는 '나 같은'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해,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11절). 만일 느헤미야가 이들의 음모에 속아 목숨을 보존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율법이 금하는 죄를 범하게 돼 성벽 재건에 위기가 도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때도 율법에 순종해 대적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위기 상황을 극복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보다 말씀의 권위를 우선했으며,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다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어이없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 15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 16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 17 또한 그 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 18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한도 베레가의 아들 므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 19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용관찰

1. 대적들이 성벽 완공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5~16절)
2. 성벽 재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유다 귀족들과 동맹한 자는 누구입니까?(17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느헤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며 세상의 방해에 부딪혀 낙심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붕괴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백성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고, 착공한 지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마무리합니다(15절).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두려움에 빠져 크게 낙심합니다(16절). 느헤미야는 이때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 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 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17~19절). 이처럼 성벽 재건과 같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에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 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 1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 2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 3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 4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용관찰

1. 성벽 재건 후 느헤미아가 추진한 일은 무엇입니까?(1~2절)
2.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3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성벽을 재건한 후 지도자를 세운 느헤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통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들을 세웁니다. 우선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한 문지기를 세우는데,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 관리하게 합니다(1절). 사실 기존 문지기들은 주로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지켰습니다(참조 대상 9:17~19). 그런데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성벽 문지기로 세웠다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 개념이 성벽까지 확장됐음을 뜻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라는 뜻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전했던 아우 하나님(참조 1:2)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됨이 뛰어난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을 다스리게 합니다(2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소서.

5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
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
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65절 중략

66 온 회중의 합계는 사만 이천삼
백육십 명이요

67 그 외에 노비가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
가 이백사십오 명이 있었고

68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요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요

69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요 나귀
가 육천칠백이십 마리였느니라

70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천 드라
크마와 대접 오십과 제사장의
의복 오백삼십 벌을 보물 곳간
에 드렸고

71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
크마와 은 이천이백 마네를 역
사 곳간에 드렸고

72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드라
크마와 은 이천 마네와 제사장
의 의복 육십칠 벌을 드렸느니
라

73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
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
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
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
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내용관찰

1.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5절)
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은 몇 명입니까?(66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사역한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기 위해 결단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과 방비 책임자를 세운 후, 성안에 귀환한 유다 백성을 많이 거주하게 하는 정책을 세웁니다. 2, 3차에 걸쳐 귀환한 유다 백성은 대부분 파악됐지만, 거의 100년 전에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은 그 수와 거주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시행합니다(5절).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인구 조사를 추진했다가 무서운 징계를 받았던 다윗(참조 대상 21:1)과 비교가 됩니다. 또한 성벽 완공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지해 사역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하나 치르고 나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교만해지는 순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혹시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 좋은 결과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지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구하고, 그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 1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 4 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

내용관찰

1.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에 모두 어디에 모였습니까?(1절)
2. 광장에 모인 백성은 에스라와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반응합니까?(6, 8~9절)

연구와 묵상

3. 율법을 들은 백성이 모두 슬퍼하며 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율법을 듣고 깨달은 백성이 모두 우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유대 종교력으로 역년의 첫날인 나팔절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으며, 학사 에스라로부터 율법을 듣습니다(1~3절).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경배했으며, 그가 낭독하는 율법과 해석을 들은 후 모든 백성이 율법 내용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같은 깨달음은 언약 갱신의 기초가 돼, 백성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백성은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후회와 회한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무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6~9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힘이 있습니다(참조 히 4:12). 그러므로 누구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굴방기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으로서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는 가정

느헤미야 8:5~10

기도하기성경읽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최근 들은 말씀의 은혜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눠 봅시다.
2. 영적 성숙과 부흥을 위해 우리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함께기도하기

우리에게 항상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영적 부흥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기립합니다(5절).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다시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6절).

이때 레위인들은 각 처소에 서 있는 백성이 율법을 깨닫도록 설명했고, 말씀을 깨달은 백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므로 슬퍼하며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8~10절).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말씀의 본질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은 이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날을 떠올리며 말씀 앞에 섰던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몸가짐부터 바로잡아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경배하기 위해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고 했기에 회개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생기면, 우리는 진리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일에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날을 기쁘게 지키려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13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 14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 15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 16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 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내용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말씀에 대한 감동이 즉각 순종으로

느헤미야 8:13~18

내용관찰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다음 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알기 위해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여기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고는 즉시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짓고 즐거움으로 초막절을 지켰으며, 에스라는 절기 내내 율법책을 낭독했다.

연구와 묵상

1.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에스라를 찾아온 이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전날 학사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는지를 깨닫게 됐다.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백성이 더욱더 말씀을 밝히 알도록 가르치려는 마음이 생겨서 에스라를 찾아왔다. 결국 그들이 말씀에 대한 소명 의식을 회복한 것이다.
2. 백성은 왜 불편한 초막 생활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했는가?
 -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다.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됐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됐다. 그러므로 이날은 포로 생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감사하며 스스로 초막 생활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막에 거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느낀 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 노력한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모습과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며 말씀에 대한 열심과 순종이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우선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언젠가 되겠지', '성령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며 안일했던 모습을 회개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감동을 즉각 순종으로 기쁘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일단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실행하고,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하겠다.

결단과 적용

1. 최근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성경 읽기표에 표시를 하며 꾸준히 성경을 읽겠다.
2. 매일 아침 여섯 시에 <풍성한 삶>으로 큐티를 하고, 주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겠다.

- 윤지숙 집사

내용관찰

1. 모세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 후 어디에 거하라고 돼 있습니까?(14절)
2. 돌아온 회중들이 한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반응합니까?(16~17절)

연구와 묵상

3. 온 백성이 초막에 거하며 크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나뭇가지로 지은 불편한 초막에 거하면서도 기뻐하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주로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나팔절 이후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데, 첫날인 나팔절에는 새해를 축하하고, 10일 대속죄 일에는 회개를 강조하며,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해의 농사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을 지킵니다(14절, 참조 출 23:14~17). 이날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70여 년 포로 생활 끝에 이뤄진 귀환 및 성벽 재건에 대한 감사로 초막에 거주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사실 초막은 풀과 나뭇가지로 지은 움막집이기에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17절). 이처럼 진정한 기쁨은 내가 처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 아래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 아래에 거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1 그 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 2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 3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 4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 5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 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내용관찰

1. 초막절을 마친 후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1~2절)
2. 금식과 절제와 회개 뒤에 보인 백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3, 5~6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진정한 회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려면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백성은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기쁨을 누린 뒤 스무나흘날에 다시 모입니다. 이날은 금식하며 굶은 배움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1절).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시행했다는 사실입니다(2절). 단순히 교제를 끊는 차원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의 이혼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학사 에스라가 약 13년 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백성을 계수하는 데서 그쳤던 미완의 개혁을 마무리하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후 백성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3절).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려면, 세상의 것들을 차단한 후 진정성 있는 회개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만일 죄의 문제를 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야말로 오늘날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참된 회개로 나아갑니까?

골방기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 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 8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 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 9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 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 11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 12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 13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 14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 15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 16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 17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까?(7~8절)
2. 백성의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16~17절)

연구와 묵상

3. 백성의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백성이 드리는 찬양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셨습니다(7~8절). 백성이 바로에게 압제를 당할 때, 홍해 앞에서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9~11절).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셨고(12절), 양식과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셨습니다(15절). 또한 그들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신실함을 깨려 했을 때는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16~1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신실함으로 표현하셨고, 백성의 연약함에는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인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좌절과 포기보다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과 성실함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의 속성들을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 1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까지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 19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 20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 21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사오며
- 22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 23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 24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 25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 26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19~22, 25절)
2.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18, 26절)

연구와 묵상

3.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백성이 하나님을 모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께 받은 복을 불순종으로 갚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출애굽시켜 준 신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18~19절).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셨고, 먹이셨으며,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20~22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성읍들과 땅, 온갖 풍부한 물건들과 먹을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등지는 무례를 범합니다(24~26절). 이처럼 부족함 없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던 바입니다(참조 신 8:12~14a). 그러므로 늘 부족함이 없어 보일 때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풍부할수록 궁핍했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자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 2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 28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 29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 30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 31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27~28절)
2.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29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패역한 백성이라도 오래 참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끊어 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긍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이 죄에 빠져 지낼 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 고통을 당하게 하는 방법도 취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백성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삶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27~28절). 마치 사사 시대와 열왕기 시대의 일을 요약한 것과 같은 징계와 구원의 역사가 본문을 통해 표현됩니다.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는 행동으로 그들의 교만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달입니다(2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참다'라는 단어에는 특별히 '끝다'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며 인자하심을 베풀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0절). 나를 사랑하셔서 오랜 시간 참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나를 오래 참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32 우리 하나님이며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 33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 34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 35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 36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 37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 38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내용관찰

1. 느헤미아가 강조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33절)

2. 백성은 무엇 때문에 종의 신분이 됐습니까?(37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에게 임의로 땅의 소산물을 관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약속의 땅을 관할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왕들에게 관리받는 상황을 보며 무엇을 느끼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내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앗수르 왕 아래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를 세우기보다 악행을 일삼았습니다(33~35절). 그 결과 이들은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다스려야 했던 이방 왕들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신분이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의 자리에 두신 일은 임의로 하신 것입니다(36~37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백성과 신실하게 언약을 세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38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종의 신분에 처하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신실한 언약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삶의 현장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기성경읽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25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 오나 **26**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9**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비취 최근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2.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가정이 되기 위해 나와 우리 가족이 가장 시급하게 끊어 내야 할 죄는 무엇인지 나누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함께기도하기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역하며, 심지어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25~26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27절). 하지만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잠시뿐 그들은 다시 악을 행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 밑에 두셨다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28~29절).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백성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반복해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 해결하는 일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했기에 이들에게 거듭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이 죄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진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그 사랑에 악으로 반응하는 행위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매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1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4 핫두스, 스바냐, 말룩,
 5 하림, 므레못, 오바다,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7 므술람, 아비아, 미야민,
 8 마아시아, 빌개, 스마야이니 이
 는 제사장들이요
- 9~27절 중략
- 28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
 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
 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밋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 29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
 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
 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
 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
 례를 지켜 행하여
- 30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
 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
 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내용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느헤미야 10:1~31

내용관찰

성경에 언약 갱신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됐고, 지도자뿐 아니라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남은 백성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다짐한다. 서명하지 못한 자들도 저주로 맹세하며 갱신된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을 것과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 않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며, 모든 빚을 탕감할 것에 대한 규정이 언급돼 있다.

연구와 묵상

1. 백성이 갱신한 언약에 서명하거나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지금까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려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 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서명한다는 것은 언약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입증하는 행위이며, 그 언약을 지켜 행한다는 것까지 내포한다. 또한 서명하지 못한 남은 자들도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저주까지도 감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담고 있다.
2. 많은 율법 중 왜 통혼과 안식을 언급했는가?
 -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이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이었다. 이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의 관습과 풍습이 혼합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흔들렸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금지 사항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한 후,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 이 조항들이 언급된 것이다.

느낀 점

죄를 자백하고 언약의 갱신을 이루기 위해 꼭 지켜 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왔는지, 그래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 왔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훈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육신의 나약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회개한다.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다.

결단과 적용

1.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구절들을 적어서 수시로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노트를 만들겠다.
2. 잘 지키다 흐지부지된 새벽예배 시간을 다시 작성해 하루를 새벽예배로 시작하겠다.

- 이 주 집사

내용관찰

1.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고 첫 번째로 결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30절)
2. 백성이 지키기로 결단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31절)

연구와 묵상

3.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와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 준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 준수를 다짐하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언약 갱신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서 각각 반응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1~27절). 또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남은 백성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28절).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데(29절), 그중에서도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지 않으며, 안식년도 거룩히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30~31절). 사실 이런 규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같은 다짐은 세상 문화와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결단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세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 기준을 차단하겠다는 결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결단은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귀한 다짐인 만큼, 반드시 지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삶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소서.

- 32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 33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 34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 35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 36 또 우리의 만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 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 39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용관찰

1.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갱신하며 무엇을 결단합니까?(32, 34~37절)
2. 백성이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39절)

연구와 묵상

3.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로 세우려는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로 세우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돌보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성전세 3분의 1세겔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해마다 정한 시기에 바치기로 결단합니다(32, 34절). 또한 초태생과 첫 열매, 십일조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양하기로 다짐합니다(35~37절). 사실 이 같은 결단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39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사와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한 성전세를 결단했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정성을 쏟았듯이, 오늘날에도 예배 회복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보며, 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골방기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 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 2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 3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 4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웃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 손이며
 - 5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 손이라
 - 6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사백육십팔 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 7~21절 중략
- 22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맛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웃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 23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 24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내용관찰

1. 황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1절)
2. 백성은 예루살렘 땅에 살기를 자원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2절)

연구와 묵상

3. 백성이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위해 복을 빈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공동체를 위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공동체를 위해 자원해서 헌신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어떤 헌신을 결단하겠습니까?

성벽은 재건됐지만, 백성은 황폐한 예루살렘보다 다른 성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수도 기능과 성전 자체가 회복되려면 백성의 이주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 중 제비로 뽑힌 10분의 1의 인원이 성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자발적으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2절). 이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희생이었습니다. 사실 성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성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헌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그들을 위해 복을 빈 것입니다(2절). 이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희생과 희생하는 사람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 헌신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오늘 내가 공동체를 위해 자원해서 헌신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골방기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복을 허락해 주소서.

- 25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랴트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 26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벤벨렛과
- 27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 28 또 시글락과 므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 29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 30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 31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과 아야와 벤엘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 32 아나돗과 놀과 아나냐와
- 33 하술과 라마와 깃다임과
- 34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 35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 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내용관찰

1. 유다 자손의 일부가 장막을 쳐서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30절)
2.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36절)

연구와 묵상

3.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외곽 지역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예루살렘 외곽까지 정확히 살피고 기록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해 나는 어떤 부분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더욱 열심을 갖고 헌신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외곽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은 주로 유다 지역 최남단인 브엘세바로부터 예루살렘 성읍 남쪽에 위치한 힌놈의 골짜기 지역에서 장막 생활을 합니다(30절). 베냐민 자손은 주로 예루살렘의 북쪽과 서쪽에 자리 잡았는데, 이 지역은 중앙 언덕과 해안의 평야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1~24절)과 유다 마을들에 사는 자들(25~36절)이 모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마을들에 해당하는 디본, 예수아, 므고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여호수아(15장)에 기록된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자치권의 일부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면서,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불렀던 지명을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해 느헤미야와 같은 열심을 갖고 나아갑시다.

골방기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1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

마음의 문을 열며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로, 결혼, 자녀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옵니다. 하지만 공동체, 사회,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깊숙이 들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1절)
2.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어떻게 보고했으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3~4절)
3. 느헤미야는 누구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먼 타국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6절)

-
4. 느헤미야가 모세와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구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가 모세와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9절)

 5. 나는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6.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곧 내 문제라고 인식하며 공동체의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아뢰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2018년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내 안에 세워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 가는 데 자양분으로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2

형제를 내 몸같이

마음의 문을 열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형제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희생하며 섬기더라도 시간이 흘러 보상심리가 발생한다면 섬길 때 들었던 기쁜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미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많고,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형제를 섬기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외세의 방해로 어렵게 막아 내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은 또 어떤 위기를 맞게 됩니까?(3절)
2. 어려움에 처한 백성은 누구를 원망했으며, 그들이 원망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 5, 7절)
3.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채무 관계를 기록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평가는 어떠하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9절, 참조 신 23:19~20)

-
4. 느헤미야가 자신도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유다 사람들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10~11절) 또 느헤미야는 어떤 결단을 내리며, 그렇게 실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4절)
5. 형제를 섬기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6.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제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생각해 보고, 내가 감당할 일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신명기에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만 기록돼 있지만, 레위기에는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레 25:35)라는 즉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남의 일처럼 여겨 방관하거나 그 어려움을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형제’라는 말이 그저 듣기 좋은 호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3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며

사람을 속이는 죄는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수법이 훨씬 더 대범하고 교묘해져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속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 자신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하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의 달콤한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준 정보는 무엇이며, 그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10절) 여기서 성전의 '외소'란 무엇을 말합니까?
2.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가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1절)
3. 스마야와 느헤미야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후 느헤미야는 무엇을 깨닫습니까?(12~13절) 느헤미야의 깨달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4.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자들의 방법은 무엇이며(13절),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5. 가정과 직장 등 여러 관계 속에서 가장 크게, 또는 가장 가깝게 느끼는 세상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위협이 닥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 냈습니까?

 6.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주님을 더욱 의뢰하며 담대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기 위해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명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속는 사람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 내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삶의 원칙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탐욕과 공포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속임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민족의 죄를 회개하라

마음의 문을 열며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로부터 얻은 혜택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지만, 자신의 공로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을 꼬집는 속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조상의 잘못을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서 한 행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2절)
2.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레위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3~4절) 레위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문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됩니까?(5~8절)
3.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복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되새기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잘못으로 국가가 망했음에도 조상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함께 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이스라엘 백성은 굶은 배움을 입고 티끌을 쓴 상태로 상당한 시간 자신의 죄와 함께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 민족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6. 우리가 직접 범한 잘못은 아니지만, 민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로 회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를 거두며

조상이든 동시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며 탓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의 범죄를 볼 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자신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합니다. 또 자신이 속한 교회 또는 사회와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하기보다,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도 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봤고, 조상에 의해 자신들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직접 범한 잘못은 아니지만, 민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